

산지축산으로 건강한 사육 책임진다!

- 특실한 육성우의 요람, 지리산낙농협동조합 인월사업소



축산업허가제 도입 확대에 따라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두수 준수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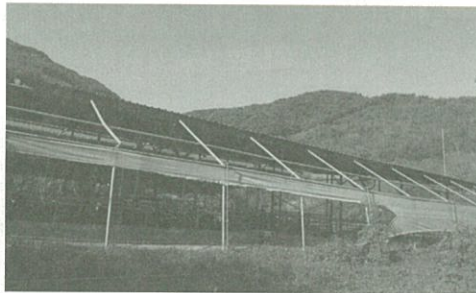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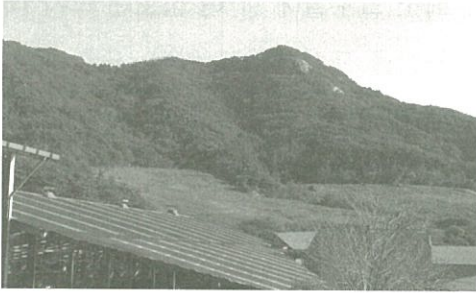
축산규제로 육성우 전용목장의 필요성 제기가 끊이지 않는 요즘인데, 공공육성우목장의 필요성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도시화의 물결에 더욱 갈 곳 몰라 힘겨워지는 낙농으로서는 앞으로 더욱 절감하게 될지 모른다.

해발 700m 청정고지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지리산낙농협동조합 인월사업소(이하 인월사업소)는 농가로부터 육성우를 수탁하여 방목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우리나라 공공목장 제1호 사업장으로 전형적인 내륙형 육성우 전문목장의 모델이다.

입지조건이 고지대라 청정지대이기도 하지만, 큰 도로에서 좁은 길을 따라 2.5km 가량 외진 곳에 위치해서인지, 인월사업소는 외부와 거의 격리되어 있다시피 하다.

최적의 사양환경을 구비하면서 근 20여년간의 운영경험을 갖춘 인월사업소 공공육성우목장은 체계적인 전문관리를 통한 육성관리로 조합원들의 경영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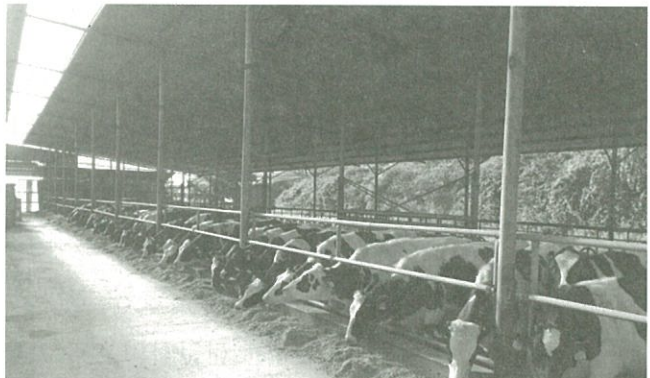
자체 전문사양관리 프로그램을 통한 건강한 사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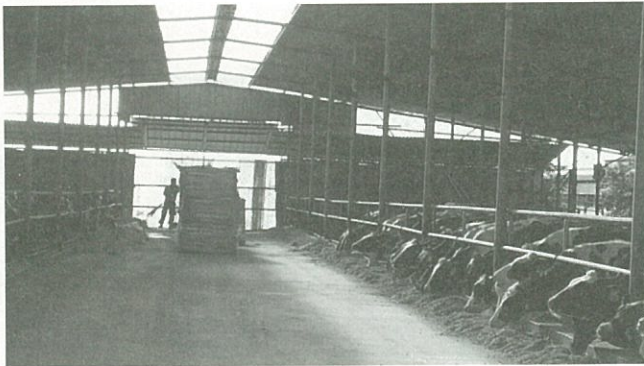


지리산낙농협동조합 공공육성우목장(이하 인월사업소)의 자량은 외부 질병 방역상 문제로부터 비교적 관리가 용이하고 천혜의 초지를 활용, 산지축산으로 건강한 후보축의 육성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해발 700m 고지에 위치한 인월사업소는 남원시내와의 기온차가 평균 5℃으로 폐렴과 같은 호흡기질환에만 유의한다면 강한 면역력을 기를 수 있는 조건이다.

육성우 단계부터 체계적인 전문관리로 고능력우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하고 대사성 질병예방으로 산차수를 높일 수 있다고 기대한다.

위탁사육 대상 월령은 3개월으로, 농가와 사업소간에 위탁계약을 체결하면 13개월까지 인월사업소에서 관리되다가 14개월째에 농가에 되돌려지게 된다. 위탁될 육성우는 목장을 떠나기 전 해당 어미소의 결핵검사 결과의 확인을 거쳐 사업소로 옮겨지게 되며, 사업소에서는 아까바네병과 같은 기본적 검사를 하게 된다. 또한, 전염병 예방을 위해 구충제를 투여하고 스트레스 완화와 활력강화를 위해 비타민제를 첨가한 버뮤다건초를 자유공급한다. 이송되어 온 송아지들은 별도 관리되면서 2주간의 적응기간을 갖는다. 이후 조사료 자유급여와 더불어 TMR은 보통 두당 6~8kg/일 꼴로 급여하면서 배꼬레(체심확장)를 늘린다.





쾌적한 사육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축사 내 톱밥을 교체해주고 있다. 또한 지역 내 전문수의사로부터 계약진료를 통해 지속적인 질병관리를 받는데, 주로 환절기때 호흡기 및 소화기 질병에 중점을 뒀 예방관리를 하고 있다

고 한다. 위탁됐던 육성우가 여환 이후 문제가 생기면 배상문제가 발생되기도 하므로 상당히 세심히 관리될 수밖에 없다고 사업소 관계자는 전언한다.

산지축산을 통한 친환경낙농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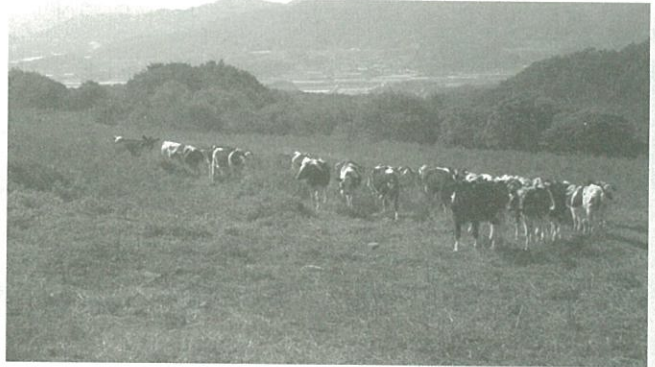
인월사업소의 장점은 단연 산간 초지를 활용한 친환경낙농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이다.

방목은 크게 4개의 구역으로 나눠 유회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주로 오차드그라스와 톨페스큐가 혼과된다. 생후 6~8개월 이후부터 방목에 들어가는데, 3월~11월까지 실시하며 12월~2월에는 축사에 머물도록 한다. 장시간 야외에서 노닐기 때문에 충분한 운동과 비타민D 합성으로 골격형성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사료섭취량도 많아지기 때문인지, 일반 관행사육을 거친 개체들과 달리 면역력이 증강되면서 잔병치레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체구나 활력 면에서 현저한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한다.

이처럼 체계적인 전문사양프로그램을 거친 육성우들은 농가에 여환(戻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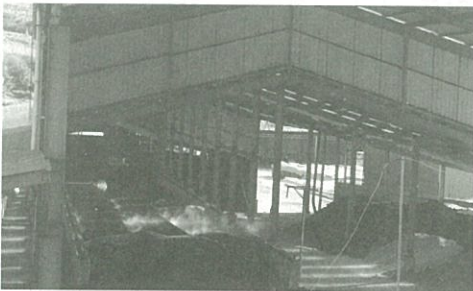
될 때 마치 성적표처럼 위탁관리 기간 중 매월 측정된 체중, 체고 증가 데이터를 농가에 함께 전달한다.

흔히 산지방목의 효과는 번식효율을 높여주고 경제수명을 늘려준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산차수 증대에 있어서도 육성기 사양관리가 큰 영향을 끼치므로 실제 그 효과가 자못 궁금하게 되는데, 아직 젓소능력검정에 참여하지 아니한 농가들이 적지 않은 현재로서는 객관적인 효과를 알 수 없다고 한다. 다만, 인월사업소 측에서는 향후 이력추적제 등을 활용하여 위탁사육 개체들의 생존율을 추정하여 경제적 수명 향상 측면에서 공공육성우목장의 효과와 그 우수성을 알리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조합원들의 사업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조합원 경영향상을 위한 수익환원으로 이어온 고집



▲유기질비료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 점도 지리산낙농협동조합 인월사업소만의 자랑.

2010년 유기질비료공장을 세워 조합원들의 목장축분을 퇴비화하여 친환경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 2011년 대단위 처리설비를 갖추어서 연간 생산량은 6,000톤(30만포)이며, 연계작물은 주로 고랭지감자, 딸기, 사과, 양파이다.

1989년 설립된 지리산낙농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목장경영에 도움을 주고자 1995년 인월사업소를 세워 협동조합 최초로 육성우목장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착유우와 육성우의 분리사육을 통해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



인월사업소의 설립·운영의
산증인인 지리산낙농협동조합
김준경 상임이사

자는 목적으로 농가 입장에서는 착유우 중심의 축사 활용면적을 높임으로서 민원문제 해결과 생산에만 전념함으로서 조합원 수익향상 효과로 조합우수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1998년 금융외환위기 기간을 비롯하여, 우유수급이나 산지가격 동향에 의한 농가 사육의지에 따라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온게 사실이다. 하지만 어떠한 손실이 있어도 육성우목장 사업은 조합원 지원사업이기에 한결같이 이어져 왔으며 그 의지 역시 변함없다고 박동록 기획상무는 말한다. 현재 위탁사육에 참여하는 농가들은 주로 운봉, 순창, 진안, 완주지역에 소재하고 있다고 한다.

“공공육성우목장 사업의 필요성은 이전에도 있었고 요즘에도 말하고들 있지만, 운영난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이 절실하다. 오래 전부터 갖춰진 인월사업소의 인프라를 좀더 활용하여 더욱 성공적인 육성우목장사업의 사례화가 될 수 있다면 좋겠는데 정부 및 지자체 지원의 요원한 현실에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1995년 인월사업소의 설립과 운영에 큰 역할을 해오며 공공육성우목장 사업의 산증인이라 할 수 있는 김준경 상임이사는 말한다. 아울러 그는 “적어도 전체 조합원들의 1/3이 애용하는 수준으로 발돋움하는 게 바램”이라 밝히고 “고령화되고 있는 조합원들의 수고를 덜고 수익향상을 도울 수 있도록 더욱 전문성을 발휘하여 운영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취재 : 교육홍보부〉

